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WEEKLY REPORT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34
JULY 3 2020

발간년월 2020년 7월 3일 (통권 제134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중국 간 최초의 북극 공동 탐사, 2021년으로 연기
- 러 북극지역 가스, 지난 5월 북극항로 통해 중국으로 수출
- 러시아, 북극 항로 활성화하기 위해 쇄빙선 건조 추진
- 러 극동북극개발부, 북극 거주민 위한 신규 혜택 부여
- 루카포트(Lugaport), 다목적 터미널 건설 공사 1단계 완료
- 로지코(Logiko),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3PL 서비스개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합 운송 시스템 크게 재편 예상
- 중국, 키르기스스탄 경유 유럽행 새로운 운송통로 개통

주요 통계

- 2020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러시아-중국 간 최초의 북극 공동 탐사, 2021년으로 연기

■ 올해 예정되었던 러-중 간 북극 공동 탐사가, 팬데믹으로 내년으로 연기되었음

- 올해 예정되었던 러시아 시르쇼브 해양학 연구소(Shirshov Institute of Oceanology)와 중국 청도 국립 해양 과학 기술 연구소(Pilot National Laboratory for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자들의 북극 공동 탐사가 2021년으로 연기되었음
- 러시아 언론 타스(TASS)통신에 따르면, 양국의 과학자 80여명이 랍테프해, 바렌츠해, 카라해, 그리고 동시베리아 해상에서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었음
- 양국 간 북극 공동 탐사의 목표는 북극해와 태평양을 연결하고, 자연적으로 얼음이 생성되는 세계 최대 대륙붕인 러시아 시베리아의 북극 대륙붕을 연구하는 것임

■ 이 연구로 북극항로의 얼음 상태를 예측하고, 북극 지역에서의 친환경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음

-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과학자들은 과거에는 연구되지 않았던 랍테프해 유라시아 분지에서 해양 지질학, 지형, 물리 해양학, 해양 화학 및 생물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 또한, 이번 공동 연구에서는 기후, 지질, 생물화학 프로세스 및 지역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임
- 이 연구를 통해 북극 항로의 얼음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북극 지역에서의 친환경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보장하는 권고안을 개발할 수 있음
- 그리고 과학 탐사를 통해 과학자들은 해양 광학, 해류, 해양 퇴적물, 해양부유생물, 식물성 플랑크톤, 방사성 핵종 및 온실 가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임
- 이는 기후 변화와 북극의 자연적인 변화 사이의 상호관계를 확립할 뿐 아니라 북극 항로의 개발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음

■ 러-중 간 북극 공동 탐사 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 북극 포럼에서 서명되었음

- 2019년 4월 10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 북극 포럼에서 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이 서명되었음
- 이 협정은 북극 지역 연구 및 북극의 생물 다양성 보존 연구에 대한 러시아 시르쇼브 해양학 연구소와 중국 청도 국립 해양 과학 기술 연구소 간 양자 협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pervaya_rossiysko-kitayskaya_ekspediciya_v_arktiku_perenesena_na_2021_god.html (검색일: 2020년 6월 4일 검색)

러 북극지역 가스, 지난 5월 북극항로 통해 중국으로 수출

■ 보통 6월이 되어야 북극 동부지역에서 항해가 가능하나, 올해 5월 북극항로를 통해 북극지역에서 생산된 가스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음[a)]

- 6월 초 크리스토프 드 마르제리(Christophe de Margerie) 가스운반선이 장쑤항에 입항했음
- 야말 LNG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가스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크리스토프 드 마르제리가스운반선은 지난 5월 북극항로를 통과함
-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는 약 34일 소요되는 반면, 사베타(Sabetta)항에서 중국까지 총 21일 소요됐음
- 이로서 크리스토프 드 마르제리 가스운반선은 5월에 북극항로 동부를 통과한 최초 대형 화물선이 되었음

그림. 크리스토프 드 마르제리(Christophe de Margerie) 가스운반선

자료: https://gcaptain.com/christophe-de-margerie-completes-early-eastbound-transit-of-northern-sea-route/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v_kitae_zavershilsya_unikalnyy_reys_gazovoza_rossiyskoy_kompanii.html"iHYPERLINK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러시아, 북극항로 활성화하기 위해 쇄빙선 건조 추진

■ 러시아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는 북극항로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쇄빙선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a)]

- 6월 15일 부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현대화된 쇄빙선 개발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것은 러시아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함
- 또한 미슈스틴 총리는 쇄빙선 개발 사업은 북극항로를 운송로로서의 잠재력을 제고하고,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유럽 국제운송로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전략적으로 러시아에 중요한 지역인 북극에서 러시아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미슈스틴 총리는 북극항로에 이용될 핵 추진 쇄빙선(5척) 건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 푸틴 대통령은 북극항로 물동량을 8000만 톤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현대화 및 개발계획에 방향을 제시함
- 네 번째 선박건조사업인 핵 추진 쇄빙선 '야쿠티야(Yakutiya)'는 수심이나 얼음 두께와 상관없이 항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어떤 국가도 이러한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함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rf_dolzhna_naraschivat_park_sovremennyh_ledokolov_chtoby_shire_ispolzovat_severnyy_morskoy_put.html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러 극동북극개발부, 북극 거주민에게 신규 혜택 부여

■ 북극 거주인구와 노동 인구 유치를 위해 우호적인 환경 조성 필요[a)]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북극에서 노동 인구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 추가 혜택을 개발해 왔음
- 극동북극개발부 차관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Alexander Krutikov)는 "북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현재의 지원 시스템은 사람들을 유인하지 못한다. 약 반세기 동안 작동한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또한, 러시아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 문제로 북극에 살기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필수적인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퇴직 전·후에 사람들이 우호적인 환경 조건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전함
- 극동북극개발부는 북극에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중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음
-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30% 대신 7.6%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 사업체가 공공조달 접근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중소규모 사업 지원 혜택 부여[a)b)]

- 러시아 연방 하원은 경제개발부가 마련한 2차 법안 초안을 채택해 북극 지역에 새로운 사업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음
- 법안에 따르면 북극에서 1000만 루블을 투자하는 사업자는 북극 거주권을 얻게 되고, 과세·비과세 혜택을 얻게 됨
- 법안 초안 문서에는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출발해서 화물을 환적하거나 재환적하는 시점까지 운송하는데 부가가치세를 0%로 하는 대상 화물 목록이 추가되었음
- 세금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업무협약 이행에서 수행된 활동으로 수익을 낸 기간부터 10년간 적용됨
- 극동북극개발부는 노동법에 따라, 북극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의 10~100%의 보너스를 받고 상여금 지급률은 근무경력과 북극 거주 기간, 연령,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기후 조건이 복잡한 지역에서는 더 높은 상여금(1.2%~2%)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하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asunlee@hotmail.com)

참고자료

a) https://tass.ru/v-strane/8722115 (검색일: 2020년 6월 28일)
b) https://tass.ru/ekonomika/8798033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루가포트(Lugaport), 다목적 터미널 건설 공사 1단계 완료

■ 루가포트(Lugaport) 투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우스트 루가(Ust-Luga)항만의 다목적 터미널 부지 기초공사가 완료됨[a)]

- 이 사업은 '노보트란스(Novotrans) 그룹사(社)'는 철심 박기, 건물 기초 공사, 해안 정비 및 제방 건설, 모래 공사 등 건설 공사 1단계를 완료함
- 1단계에 소요된 투자 금액은 70억 루블 이상이며, 해상에서의 작업을 위해 20 여척의 선박(해상 플랫폼, 해상 기중기, 예인선, 바지선 등)이 이용됨
- 폭풍우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던 기간(120일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음
-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관리기관과 협상 중이며, 이후 2단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임

그림. 우스트 루가 다목적 터미널 기초 공사 현장(좌) 및 위치(우)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R0lR_YO_lZk

■ 노보트란스 그룹은 러시아 기업 중 다목적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는 주요 건설회사임

- 노보트란스 그룹사(社)는 코로나19 판데믹과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소련 이후 러시아는 다목적 터미널을 설계하거나 건설한 경험이 없어 이 사업은 러시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짐
- 파나맥스(PANAMAX), 뉴파나맥스(NEW-PANAMAX), 베이비케이프사이즈(BABY-CAPESIZE) 등 대형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다는 점과 핀란드, 발트 3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러시아 수출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7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pervyy_etap_stroitelstva_universalnogo_terminala_lugaport_v_portu_ust-luga_zavershen.html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로지코(Logiko)’,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3PL 서비스 개시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투자자인 ‘Logiko’는 3PL 기업을 설립함[a)]

- 이 사업으로 모두 267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142개의 일자리는 이미 창출되었음
- ‘Logiko’는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물류기업이며, 주요 거래처는 무역기업임
- ‘Logiko’ 창고 2개는 각각 아르툠(Artem)과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시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은 9,500㎡, 보관 가능한 화물의 최대 부피는 9,000㎥ 임

■ 세르게이 테르노븨흐(Sergei Ternovykh) ‘Logiko’ 대표는 물류회사는 화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 그에 따라 ‘Logiko’는 화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창고에 ICT 기술을 접목시킬 계획임
- 극동개발공사와 체결한 협정 내용에 따르면 총 투자금액은 1,580만 루블이며, 현재까지 200만 루블이 투자됨
- 투자자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의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Logiko’는 사회보장세 7.6%로 감면받았으며, 소득세 0%의 혜택을 받고 있음

■ 블라디보스톡 입주기업은 극동지역에 1,440억 루블 이상을 투자했으며, 약 1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음

- 현재 자유항 입주기업 1,927개는 총 9,436억 루블 이상 규모의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서 9만 1,200명이 취업에 성공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vch.ru/event/view.html?alias=k_okazaniyu_polnogo_kompleksa_logisticheskih_uslug_pristupil_rezident_svobodnogo_porta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합운송 시스템 크게 재편 예상

■ 스타니슬라브 르코브(Stanislav Lykov) «러시아 컨테이너 회사» (RCC , JSC Russian Conteiner Company) 그룹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합운송체계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음[a)]

-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지역화가 심화됨에 따라,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상황은 예전처럼 정상화 되지 못할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 경쟁을 해야 하는 복합운송시장에서는 더욱 복잡한 요구가 많아질 것이며, 단일화된 형식에 맞추는 방식은 최적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함
- 팬데믹으로 인해 복합운송체계는 느리지만 확실히 바뀌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복합운송체계를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철도 네트워크를 단순화하는 것이며, 이는 몇 년 내로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함

■ 팬데믹으로 인해 복합운송체계는 느리지만 확실히 바뀌고 있으며, 국제운송 또한 예외가 아님

- 스타니슬라프 르코프 사장은 미중 간 경제적 충돌로 인해 개인 수출입업자들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중국과의 거래가 계속해서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정부는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외부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할 것이며, 이는 미국 정부가 더욱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국가, 즉 동남아시아와 같은 국가를 모색하는 등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또한 르코프 사장은 공급과잉은 습관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운송망을 통한 정시운송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음. 즉, 운송비용의 절감문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함
- 또한 국제운송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재고는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전략적 상품 혹은 핵심 제품의 경우 국내 혹은 인접국에 예비창고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 공급사슬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경로 선택과 분배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임. 더 중요한 요

소는 소비를 촉진해야 함

- 재택근무 제도 도입과 같이 기업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
- 사무실 대여 필요성이 낮아지고, 출장 또한 감소하고 있어, 부동산, 출장 관련 숙박, 회의실 대여 등과 같은 영역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날 것임. 예를 들어, 콜센터의 경우, 사무실을 대여할 필요 없이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음
- 가정에서는 전자상거래 이용도가 급증하고 있어 백화점이나 상점 등 공간 및 인력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단, 소량다품종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물동량은 증가할 것이며, 대도시뿐 만 아니라 소도시, 마을까지도 공급망이 구축되어야 함에 따라 국내 복합운송시장(항만~철도~도로)은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질 것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vch.ru/event/view.html?alias=intermodalnye_gruzoperevozki_chto_ghdat_posle_karantina (검색일: 2020년 6월 29일)

중국, 키르기스스탄 경유 유럽행 새로운 운송통로 개통

■ 우즈베키스탄 투자 무역부에 따르면,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새로운 운송회랑을 개통함

-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와 연결하는 새로운 운송회랑이 개통되었음. 운송 루트는 열차에서 차량으로의 운송 그리고, 다시 차량에서 열차로 옮겨지는 운송루트가 포함됨
- 복합 운송 회랑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스(Kashgar)와 키르기스스탄의 오시(Osh)의 에르케쉬탐(Irkeshtam) 항구를 거쳐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로 연결됨

■ 6월 5일, 전자 제품을 실은 25개의 컨테이너가 연결된 첫 번째 '블록 트레인'이 중국 간쑤성의 란저우(Lanzhou) 역에서 출발함

- 출발한 열차는 복합 운송 회랑을 따라 중국-키르기스스탄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쉬켄트로 제품을 운송할 예정임
- 화물은 카스(Kashgar)-에르케쉬탐(Irkeshtam)-오시(Osh) 구역은 차량으로 이동되었으며, 나머지 루트는 기차로 운송됨
- 우즈베키스탄의 언론에 따르면, 열차는 230톤(260만 달러 규모)의 전자 제품들을 운송할 것임. 한편, 타쉬켄트에 도착한 열차는 다시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목화 면직물 525톤을 중국 간쑤성으로 운송할 예정임

■ 새 운송 회랑은 중국에서 카자흐스탄 경유없이 유럽으로 가는 첫 국제 회랑임

- 키르기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의 운송 경로는 카자흐스탄 호르고스(Khorgos)와 도스띡(Dostyk)를 통했던 기존 경로보다 295km 정도 더 짧으며, 운송기일이 5일 단축됨
- 이 국제 회랑의 1단계는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이며, 2단계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스피 해를 통해 이스탄불로 가는 루트가 될 것임

그림. 컨테이너 화물을 연결한 블록 트레인

자료: https://mift.uz/ru/news/zapuschen-pervyj-blok-poezd-po-multimodalnomu-transportnomu-koridoru-kitaj-kyrgyzstan-uzbekistan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안은형,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dksdmsgud6@naver.com)

참고자료

a) https://ru.sputnik.kg/economy/20200610/1048618270/kitay-kyrgyzstan-uzbekistan-poezd-koridor-tranzit.html (검색일: 2020년 6월 10일)
b) https://mift.uz/ru/news/zapuschen-pervyj-blok-poezd-po-multimodalnomu-transportnomu-koridoru-kitaj-kyrgyzstan-uzbekistan (검색일: 2020년 7월 2일)

주요 통계

표. 2020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11.75 (+1.9%)	6.9 (+2.6%)	18.65	+2.2%
북극해	2.41 (-9.8%)	6.04(-2.6%)	8.45	-4.7%
발트해	9.34(-1.1%)	12.78 (+7.0%)	22.12	+3.6%
아조프-흑해	9.48 (+4.0%)	15.25 (+3.1%)	24.73	+3.4%
카스피해	0.34 (+38.3%)	0.41 (+26.8%)	0.75	+31.6%
합계	**11.75 (+1.9%)**	**6.9 (+2.6%)**	**18.65**	**+2.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랴, 마하치칼라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82659/?sphrase_id=2939703(검색일: 2020년 6월 10일)

표.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2,053,514.1	507,680.7	2,052,912.6	506,529.5	601.6	1,151.2
광물 제품	416,376.0	72,046.0	416,182.7	72,010.7	193.3	35.3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309,134.8	17,476.6	1,309,134.8	17,476.6	0.0	-
생고무 및 화학 제품	1,247,769.2	16,360.7	1,247,769.2	16,360.7	0.0	0,0
가죽원료, 모피 제품	4,355.8	55,374.8	4,338.0	55,374.3	17.8	0.4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20.6	853.5	20.6	853.5	0.0	0,0
섬유,섬유 제품 및 신발	78,582.8	7,077.3	78,467.0	7,032.7	115.7	44.6
금속 및 금속 제품	1,366.5	18,130.0	1,366.5	18,130.0	0.0	0.0
기계류	15,563.0	43,335.9	15,562.8	43,065.3	0.1	270.6
기타	16,190.3	267,986.3	15,919.2	267,214.9	271.1	771.3
합계	**211,924.4**	**25,400.4**	**211,920.9**	**25,371.4**	**3.5**	**29.0**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document/233675(검색일: 2020년 6월 10일)

표.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동어	1	7.1	-	-	1	7.1	-	-	-	-		
연어류	178,025	257,187	466	716	177,983	257,061	466	716	42	126	-	-
넙치	9,971	20,198	-	-	9,929	20,072	-	-	42	126	-	-
가자미	41	177	-	-	41	177	-	-	-	-	-	-
가자미류	2,358	2,340	-	-	2,358	2,340	-	-	-	-	-	-
청어	4,309	4,663	-	-	4,309	4,663	-	-	-	-	-	-
대구	1,771	1,345	-	-	1,771	1,345	-	-	-	-	-	-
명태	8,683	23,897	-	-	8,683	23,897	-	-	-	-	-	-
농어	136,661	170,288	-	-	136,661	170,288	-	-	-	-	-	-
간, 곤이 (어란)	16	115	-		16	115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662	23,383	-	-	6,662	23,383	-	-	-	-	-	-
생선 필렛, 어육	446	700	-	-	446	700	-	-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0,545	31,095	48	197	10,545	31,095	48	197	-	-	-	-
갑각류	4	83.5	148	924	4	83.5	148	924	-	-	-	-

게류	3,087	53,562	42	246.6	3,087	53,562	42	246.6	-	-	-	-
조개류	2,034	45,661	-	-	2,034	45,661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821	1,808	-	-	821	1,808	-	-	-	-	-	-
수산 무척추 동물	629	1,024	-	-	629	1,024	-	-	-	-	-	-
성게류	138	402	69	254	138	402	69	254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document/230469(검색일: 2020년 6월 10일)